

“악취 민원지역에 실시간 정보 제공”

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
악취 저감 세미나에서 거론
악비순환시스템 적용
기술지원단 운영 등 제안돼



전북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지난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축사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축산농가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만기)는 지난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축사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축산농가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민원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도내 축사시설 현황과 악취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축사 악취 저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전북축산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는 도내 축사시설 현황과 밀집도를 검토한 후 "악비순환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축사와 대규모 축사단지에서 악취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의 접근을 순환 방식 적용여부를 기반으로 각각 악취 발생과 배출 및 처리에 적용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박비오 박사는 "행정과 악취 전문가 간의 협약을 통해 악취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축사단지 밀집 지역 및 악취 민원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악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은섭 대표의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축 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만기 대표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식전

환이 우선돼야 하고,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김만기 대표의원과 황영석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 산업구조 내생적 성장기반 구축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통해 주장

“새만금으로의 대기업 투자·전북형 뉴딜 연계
지역 주력산업 구조 전환시 성장 더 가속화 가능”

전북도의 산업구조가 지역내 전·후방산업간 연관관계가 커지면서 내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6일 이슈브리핑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방안'을 통해 전북도 산업구조는 새만금으로의 대기업 투자와 전북형 뉴딜 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 구조를 전환할 경우, 지역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내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한국은행은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했는데, 지난 2015년 발표한 '201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에 이어 5년만에 발표한 자료이다.

두 시점의 지역산업연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의 산업 구조는 지역내 전·후방산업간의 연관관계가 커져 내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주력산업인 식품산업과 탄소산업은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조를 형성해 지역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며, 시·군별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식품산업들이 지역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탄소산업은 효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함께, 연구개발 및 기초 재료 공급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후방산업들이 지역내 집적화됐고, 지속적으로 탄소소

재와 융합된 수요산업 발굴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 산업간 연관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특정 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됐다.

지역내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지난 2010년 기준에 비해 상승, 지역의 개발 사업 및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가 지역 내로 환류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김시백 연구위원은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 추세를 더욱 가속화해 지역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북형 뉴딜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융합형 D.N.A.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소재 융합 수소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의 데이터센터 투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융합형 D.N.A.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북형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큰 ICT 산업을 적극 육성,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탄소산업은 전·후방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계기로 전방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수소자동차, 풍력발전 등과 연계한 탄소산업 밸류체인 형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호상 기자

‘모바일로 편리하게’...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전면 개편

이용 편의성 높여... 사용자 관심도 반영 수요자 중심 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을 전면 개편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영·중국어·일본어 콘텐츠를 보강하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이동통신)에 최적화하는 등 국내외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 및 투자

상담, 방문 시 불거리·줍거리 등을 소개함으로써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먼저, 복잡한 투자해택(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세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구분해 기업유형별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사업유형별로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간단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증을 통해 온라인 민원상담 및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마드(NOMAD, 유목민)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등 주요 행사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연도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해

참가자들이 추억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더불어, 지도 서비스와 연계한 새만금 드론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의 변화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비경 등을 체험하고, 주변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관광코스 등을 소개, 방문객이 유용한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세용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은 국내외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홍보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화면별 조회 건수 등 사용자 관심도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누리집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남희 정읍시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우수'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이남희 의원이 지난 11일 여의도정책연구원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도 의정평가는 의정활동의 중간 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은 물론 시장질문, 조례 제정과 특히, 5분 자유발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제안'을 통해 집행부에 지역 상황에 맞는 선도적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등 시민복지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남희 의원은 "앞으로도 정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경쟁력 있는 중기, 새만금 산단에 공장 유치

개발청-대진엔지니어링, 입주계약 체결... 내년 2월 제강 설비 공장 착공 6월 준공 목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6일 (주)대진엔지니어링(대표 이경아)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열 번째 체결한 입주계약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새만금 개발청의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이 일궈낸 성과이다.

(주)대진엔지니어링은 산단 1공구

(7,152㎡)에 24억원을 투자해 내년 2월 제강 설비를 제조하는 공장을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주)대진엔지니어링이 특허를 보유한 '제강 래들(Ladle) 예열시스템' 관련 제품의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대비한 선제적인 생산설비 투자이다.

(주)대진엔지니어링은 래들을 미리 가열하는 '래들 가열대(Pre Heater)'

를 주력 생산해 제강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주)대진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제강 래들 예열시스템 특허기술은 열효율 개선을 통해 타사 대비 20% 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연소 방식으로 질소산화물(NOx)을 현저히 저감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기여 공로

이명연 도의원,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주 아중롯데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최소 인원만 모여 이뤄졌으며, 김중선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대표해 전달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아파트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준 이명연 의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